

노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태도조사 연구

김 은 일

이화여자 대학교 간호대학

목 차

- I. 서 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IV. 고 찰
- V. 결론 및 제언
- 참고헌문

I. 서 론

현대 사회는 급진적인 의학의 발달, 경제 수준의 향상과 사회 문명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차적으로 연장되어 가며(이 윤숙 1976), 사망율과 출생율의 저하경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 순담 : 1981) 60세이하 노령 인구의 비율은 미국의 경우 1971년 14.1%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971년 5.9%로서, 미국의 14.1%에 비하면 적은 편이나 점차 노령인구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이 효재, 지 순, 박 민자 ; 1979)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들의 기본 요구와 관련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요 사망원인중 뇌졸중, 심장질환, 암, 노쇠등이 10대 사망원인 안에 포함되어 있어 노화과정은 성인병과 더불어 주요 의료 문제로 시사되고 있다. (이 경식 ; 1978) 이뿐 아니라 노인이라는 특수연령층 집단에 따라오는 문제로서는 노화과정에 의한 신체적인 변화, 힘의 약화, 퇴직과 더불어 오는 경제적인 불안정 및 사회나 가정에서의 역할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인 변화등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인 면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다. (김 귀분 ; 1978 Brunner: 1970)

하 영수(1977)는 간호란 한 문화권 내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 변천하며 스스로 그 사회에 맞게 변화하고 또한 사회와그

체제에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언급했으며, 간호원의 역할과 책임은 다방면의 많은 차원에 걸쳐 있으며 다양한 환경 하에서 모든 인종, 모든 사회 경제 계층 그리고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최선의 간호행위는 수태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인간, 즉 건강한 상태와 질병 상태에 처한 인간을 이해하는데 그 기본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그들의 건강문제는 노인간호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를 암시하고 있다(Kayser, Minnigerode; 1975)고 볼 때 현대에 이르러 간호의 대상으로서 노인의 건강문제가 부상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각 연령기와 환경적 여건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건강상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현대 간호의 개념은 노인간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하였고 이는 간호의 중요한 일부야로 대두되었다(최 경옥 ; 1975)

이와같이, 간호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는 노인간호에 대하여 그 효과를 결정하는데 특히 중요한 요소는 노인환자에 대한 간호원의 태도이며, 그 태도 및 행위는 그 사람의 생각, 가치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노인에 대한 간호원의 바람직한 생각 및 가치는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바람직한 태도는 치료적인 간호조정을 하게할 것이다(Gunter; 1971) 또한 Frenay와 Pierce(1971)는 노인환자에게 희망적이며 신뢰감 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노인환자의 행동이 변화했음을 보고 하였고, Davis(1968)는 노인에 대한 간호원의 편견을 그들이 스스로 평

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노인환자에게 효과적인 간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노인환자에게 효과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간호원이나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간호원이나 간호학생이 노인을 간호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인 가치와 전통이 외국과는 상이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노인인구 증가의 문제와 함께 노인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고, 노인간호 역시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간호를 위한 간호원이나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위해 본인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며 노인간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다.
2. 연구대상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학년별· 앞으로 근무하기 원하는 분야별· 노인환자를 간호해 본 경험별· 가족중 노인과 살아 본 경험별· 노인의 건강문제 및 노인간호에 대한 강의 경험별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친척 및 이웃의 60세 이상 노인과 사귀어 경험별 차이를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기간

본 연구는 E여자대학교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163명과 K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96명, 총 25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1981년 9월 11일부터 10월 8일까지였다.

B.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Tuckman과 Lorge의 Attitudes Toward Old People Questionnaire

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간호학 교수에게 어휘 및 내용에 관한 자문을 거쳐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 9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6개 문항을 제외한 131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시작 전이나 후에 그 시간의 담당 교수에게 의뢰하여 집단조사를 실시한 후 회수하였고, 그 질문지의 회수율은 약 76%였으며 그 중 문항을 완전히 채우지 않은 것은 제외하여 연구자료에 사용된 질문지수는 259매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131개 문항 모두가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misconceptions)와 고정관념(stereotypes)에 대한 진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진술에 동의할 경우에는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니오”에 “V”로 기재하게 하였다. “예” 반응에는 1점, “아니오” 반응에는 0점을 주어 전체 배점 범위를 0~131점으로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노인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와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과의 관계를 설명해 보고자, 간호대학생이 속한 학년, 앞으로 근무하기 원하는 분야, 노인환자를 간호해 본 경험, 가족중 노인과 살아 본 경험, 노인의 건강문제 및 노인간호에 대한 강의 경험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친척 및 이웃의 60세 이상 노인과 사귀어 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 각각의 독립변수와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관계분석은 T-test로 검정하였다.

C.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의 대상이 E여자대학교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163명과 K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96명, 총 259명으로 국한되었으므로 전국수준에서 일반화할 수 없다.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검정이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표준화 되지 못하였다.

Ⅲ. 연구결과

A. 연구대상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은 $M=71.67$, $67 S.D=16.18$ 로 고정관념적 진술의 54.8%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정관념이 없다라는 영가설을 검정한 결과 이것이 기각되므로($P<0.01$) 노인에 대해 고정관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향을 인정할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자수(명)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	
	Mean	S.D
259	71.67	16.18

B. 연구대상의 학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28.19%, 2학년이 23.17%, 3학년이 26.25%, 4학년이 22.39%였으며, 학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연구대상의 학년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학 년	대상자수(명)	백분율(%)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		F-Value	P-Value
			Mean	S.D		
1 학년	73	28.19	71.51	16.14	2.46	0.06
2 학년	60	23.17	74.65	15.33		
3 학년	68	26.25	67.56	15.40		
4 학년	58	22.39	73.60	17.35		
계	259	100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은 1학년의 경우가 $M=71.51$ $S.D=16.14$, 2학년의 경우가 $M=74.65$ $S.D=15.33$, 3학년의 경우가 $M=67.56$, $S.D=15.40$ 그리고 4학년의 경우가 $M=73.60$ $S.D=17.35$ 로 3학년만이 2, 4학년에 비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낮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그밖의 학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C. 연구대상의 앞으로 근무하기 원하는 분야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의 앞으로 근무하기 원하는 분야별 분포는 정신간호분야 29.34%, 성인간호분야 25.10%, 아동간호분야의 22.98%의 순위로 높았고, 노인간호분야가 0.77%로 가장 낮았으며, 앞으로 근무하기 원하는 분야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다(표 3).

노인에 대한 태도평점은 모성간호분야가 $M=$

표 2-1. 학년간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의 평균차에 대한 T-Score

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1 학년				
2 학년	1.14			
3 학년	1.48	2.61**		
4 학년	0.71	0.35	2.05**	

** $P<0.01$

82.54 $S.D=8.41$, 성인간호분야가 $M=72.43$ $S.D=16.10$, 기타가 $M=72.07$ $S.D=15.14$, 정신간호분야가 $M=71.17$ $S.D=17.98$, 아동간호분야가 $M=70.71$ $S.D=15.04$, 보건간호분야가 $M=68.60$ $S.D=15.81$, 노인간호분야가 $M=66.50$ $S.D=23.33$ 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노인간호분야는 그 분야를 원하는 대상자수가 2명(0.77%)뿐이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6개 분야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T-검정에 의한 분석 결과, 모성간호분야를 원하는 경우에만 다른

표 3. 연구대상의 앞으로 근무하기 원하는 분야별 노인에 대한 태도

앞으로 근무하기 원하는 분야	대상자수(명)	백분율(%)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		F-Value	P-Value
			Mean	S.D		
아동간호분야	59	22.78	70.71	15.04	1.27	0.27
모성간호분야	13	5.02	82.54	8.41		
성인간호분야	65	25.10	72.43	16.10		
노인간호분야	2	0.77	66.50	23.33		
정신간호분야	76	29.34	71.17	17.98		
보건간호분야	30	11.58	68.60	15.81		
기 타	14	5.41	72.07	15.14		
계	259	100				

표 3-1. 앞으로 근무하기 원하는 분야간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의 평균차에 대한 T-Score

근무하기 원하는 분야	아동간호분야	모성간호분야	성인간호분야	정신간호분야	보건간호분야	기 타
아동간호분야						
모성간호분야	2.98**					
성인간호분야	0.65	2.17*				
정신간호분야	0.16	2.21*	0.56			
보건간호분야	0.60	2.93**	1.07	0.68		
기 타	0.42	2.12*	0.08	0.02	0.67	

*P<0.05 **P<0.01

표 4. 연구대상의 노인환자를 간호해 본 경험별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환자를 간호 해 본 경험	대상자수(명)	백분율(%)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		T-Score	P-Value
			Mean	S.D		
있 다	96	37.07	70.28	16.90	1.06	0.29
없 다	163	62.93	72.48	15.74		
계	259	100				

분야를 원하는 경우에 비해 노인에 대한 고정관
념이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0.05$,
 $P<0.01$), 그밖의 분야간에는 노인에 대한 태
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D. 연구대상의 노인환자를 간호해 본 경험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의 노인환자를 간호해 본 경험별 분
포는 경험이 있는 학생이 37.07%, 경험이 없는
학생이 62.93%로 경험이 없는 학생이 과반수 이

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중 3학년,
4학년만이 임상 또는 보건 실습 경험을 갖기 때
문으로 보여지며, 노인환자를 간호해 본 경험별
노인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다(표 4).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은 노인 환자를 간호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M=70.28$ $S.D=16.90$,
경험이 없는 학생이 $M=72.48$ $S.D=15.74$ 로서
T-검정에 의한 2집단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P>0.05$).

표 5. 연구대상의 가족중 노인과 살아 본 경험별 노인에 대한 태도

가족중 노인과 살아본 경험	대상수(명)	백분율(%)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		T-Score	P-Value
			Mean	S.D		
있 다	158	61	71.09	16.53	0.71	0.48
없 다	101	39	72.56	15.66		
계	259	100				

표 6. 연구대상의 노인의 건강문제 및 노인간호에 대한 강의 경험별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의 건강문제 및 노인간호에 대한 경험	대상자수(명)	백분율(%)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		T-Score	P-Value
			Mean	S.D		
있 다	99	38.22	71.39	15.42	0.21	0.83
없 다	160	61.78	71.84	16.68		
계	259	100				

표 7. 연구대상의 가까이 지내는 친척 및 이웃의 60세 이상 노인과 사귀 경험별 노인에 대한 태도

가까이 지내는 친척 및 이웃의 60세 이상 노인과 사귀 경험	대상자수(명)	백분율(%)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		T-Score	P-Value
			Mean	S.D		
있 다	195	75.29	71.11	16.53	0.97	0.33
없 다	64	24.71	73.38	15.07		
계	259	100				

E. 연구대상의 가족중 노인과 살아 본 경험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의 가족중 노인과 살아 본 경험별 분포는 경험이 있는 학생이 61%, 경험이 없는 학생이 39%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많았으며, 가족중 노인과 살아 본 경험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다(표 5).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은 가족중 노인과 살아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M=71.09$ $S.D=16.53$, 경험이 없는 학생이 $M=72.56$ $S.D=15.66$ 으로 T-검정에 의한 그 집단 사이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F. 연구대상의 노인의 건강문제 및 노인간호에 대한 강의 경험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의 노인의 건강문제 및 노인간호에 대한 강의 경험별 분포는 경험이 있는 학생이 38.22%, 경험이 없는 학생이 61.78%로 경험이 없는 학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의 건강문제 및 노인간호에 대한 강의 경험별 노인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다(표 6).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은 노인의 건강문제 및 노인간호에 대한 강의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M=71.39$ $S.D=15.42$, 경험이 없는 학생이 $M=71.84$ $S.D=16.68$ 로, T-검정에 의한 2집단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P>0.05$),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태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G. 연구대상의 가까이 지내는 친척 및 이웃의 60세 이상 노인과 사귀 경험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의 가까이 지내는 친척 및 이웃의 60세 이상 노인과 사귀 경험별 분포는 경험이 있는 학생이 75.29%, 경험이 없는 학생이 24.71%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많았으며, 가까이 지내는 친척 및 이웃의 60세 이상 노인과 사귀 경험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다. (표 7)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은 가까이 지내는 친척 및 이웃의 60세 이상 노인과 사귀 경험이 있는 학생이 $M=71.11$ $S.D=16.53$, 경험이 없는 학생이 $M=73.38$ $S.D=15.07$ 로서 T-검정에 의한 2점단 사이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IV. 고찰

의학의 발달, 환경위생 및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그에 따른 노령 인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1960년의 남자 54세, 여자 58세에서 1975년에는 남·여 각각 66세, 70세로 15년 사이에 평균 12년이나 연장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백인 남자 68.9세, 여자 76.6세, 흑인 남자 62.9세, 여자 71.2세의 수명과 비교할 때 두나라간의 평균수명은 별 차이가 없다(이 효재, 지순, 박민자: 1979)

연령을 더해가는 과정인 노쇠현상은 인간의 자연적인 발달현상이다.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와 같이 노쇠현상은 정상적인 상태이다. 노년기에는 퇴직, 배우자와의 사별, 친구와의 사별, 신체적·정신적 기능 감퇴 등이 주원인이 되어 노인은 제한되는 지위 및 역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핵가족화 등 가족제도의 변화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노인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게 된다. (유숙자; 1980 Burnside: 1976) 이러한 노인문제는 지역 사회 내에 항상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현존하는 문제이므로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간호원의 간

호를 통한 개입은 필수적이며,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일은 간호원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

노인의 인구증가와 함께 노인에 대한 그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적 태도를 조사한 연구는 많으며, 미국의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젊음-중심의 사회라는 성격에 의해 거부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 사회 그 자체가 노인에 대해 거부적인 상황에서 건강 전문가들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간호원도 역시 이러한 문화적인 태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간호원의 태도는 노인환자와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Putnam: 1974)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도 역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최경옥; 1975). Campbell(1971)은 간호원이 노인환자에게 좀 더 긍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대할 때 노인환자 역시 간호원을 기꺼이 수용하고 신뢰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간호원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노인간호의 근본임을 암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태도 및 질적 간호가 노인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으며, Lowenthal (1958)은 노인환자의 실금문제를 다룬 연구에서 간호원의 태도가 노인환자의 신체적 및 심리적 퇴행을 막거나 전환시킴으로써 노인환자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Dupuis(1970)는 간호원의 자아 개념, 노인간호에 대한 Orientation 및 재활에 대한 태도와 노인환자의 예후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재활의 개념과 철학이 노인환자에 대한 간호원의 부정적인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Benjamin(1967)은 노인환자가 그들의 신체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간호원의 따뜻하고 지지적인 접근과 긍정적인 태도를 필요로 하고, 다정하고 수용적인 간호원환자 관계를 갖기를 원하며, 노인환자에 대한 간호는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그들에게 독립성을 길러주는 것뿐만이 아닌 심리, 정서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회복 및 증진에 근거하여 자존감, 가치감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회복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원의 태도가 노인환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란 대상에 대한 일정한 반응양식으로 행동에 대한 경향성이며 학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번 형성된 태도는 비교적 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쉽게 변화하거나 교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태도변화를 위한 교육적 노력은 그만큼 어려운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태도가 전혀 변화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교육적 방법 여하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특성을 여러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그리고 태도의 형성과 발달에 작용하는 요인은 개인의 욕구, 자극대상에 대한 경험정보에 의해 구성되는 인지적 조직, 집단에의 관여, 그리고 인성등임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밝혀졌다(이 지영, 황 경숙; 1978).

Frenay (1968)는 노인간호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서 간호원 및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는 원인들로서 나이의 격차, 노인들의 숙명론적인 태도, 죽어가는 노인환자와의 상호작용을 꺼려하는 것, 제한된 간호지식과 기술 등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 이러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다 우호적인 태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간호학생의 지적 성취감의 강화 및 역동적 교육을 통해 행동을 동기유발시켜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는 Tuckman과Lorge가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노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자료를 수집 평가 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은 $M=71.67$ $S.D=16.18$ 로 고정관념적 진술의 54.8%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에 대해 고정관념적인 태도를 갖고있는 경향을 인정할 수 있다. ($P<0.01$). 이는 간호원을 대상으로 하여 Tuckman과 Lorge가 개발한 질문지를 가지고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Campbell(1971)의 연구에서 간호원이 고정관념적 진술의 약 56.6%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학년별 노인에 대한 태도는 3학년이 2,4학년에 비해 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났는데 ($P<0.01$), 이는 학년별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Kayser와 Minnigerode(1975)의

결과와 비교된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이 2학년 $M=74.65$, 4학년 $M=73.60$, 1학년 $M=71.51$, 3학년 $M=67.56$ 의 순위로 학년간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에 어떤 일관된 방향을 엿볼 수 없으며, 이는 학년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개선할만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었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비했음을 가리킨다고 보여지므로 학년에 따른 노인간호에 대한 계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재검토가 차후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학년은 연령과 관계되므로 이를 연령별로 차이를 조사한 연구와 비교할 때 Tuckman과 Lorge는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고정관념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연령차가 4~5년 정도의 미소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Tuckman과 Lorge의 연구결과와 비교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이 앞으로 근무하기 원하는 분야의 선택에서, 정신간호분야(29.34%), 성인간호분야(25.10%) 및 아동간호분야(22.78%)가 높고 노인간호분야(0.77%)가 낮은 순위를 보인 것은 간호원을 대상으로 한 최 경옥(1976)의 연구에서 역시 내외과가 41.1%로 수위를 보였고 양로원은 응답자 모두가 원하지 않았으며, Gunter(1971)의 연구에서도 간호학생이 노인을 위한 기관에서 일하기를 거의 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되는 현상으로 노인간호분야를 원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간호를 위한 간호인력 확보가 전망되어지는 현시점에서 볼 때 이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Frenay (1968)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환자의 간호를 담당할 인력이 전에없이 더욱 다급하게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간호원의 교육과정에 노인환자 간호를 위한 준비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그러므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노인건강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학생들을 동기화시켜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앞으로 근무하기 원하는 분야별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모성간호분야를 원하는 학생이 $M=82.54$, $S.D=8.41$ 로 다른 어떤 분야를 원하는 학생보다 높은 고정관념을 나타내었으며 ($P<0.05$, $P<0.01$), 그밖의 분야를 원하는 경우간에 있어

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이는 모성간호분야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근무하기 원하는 분야선택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모성간호분야를 원하는 경우에만 다른 분야를 원한 경우에 비해 노인에 대해 높은 고정관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차후 요망된다.

노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노인환자를 간호해 본 경험별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P>0.05$),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이나 보건의습을 통하여 노인환자를 간호할 기회를 갖게 되지만, 그러한 경험은 실습 스케줄에 따라 시간적으로 제한되므로 충분히 노인환자를 간호하는 경험을 갖지 못하며, 또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간호하는 경험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에게 보다 계획되고 풍부한 노인환자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보겠다.

가족중 노인과 살아 본 경험별 노인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P>0.05$), 이로써 가족중 노인과 살아본 경험 유무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최 경옥(1975)과 Robb(1979)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노인의 건강문제 및 노인간호에 대한 강의를 받아본 경험별 노인에 대한 태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P>0.05$), 이와 비교되어 Wilhite(1976)는 Tuckman과 Lorge가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환자의 간호에 대한 8주동안의 강의를 듣기전과 후에 노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강의를 들은 후 학생들의 고정관념적인 태도가 감소했음을 보고했고, Gunter(1971)도 "Nursng Functions in Gerontology"에 대한 강의를 이수한 이후가 그 전에 비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태도가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본 연구와 외국의 연구결과가 대조를 이루는 것은 간호대학생이 노인의 건강문제 및 노인간호에 대한 강의를 받아 본 경험은 교과과정상 여러 과목에 산재되어 포함시켜 받았을 뿐이고 외국의 경우처럼 "노인간호학"이라는 과목이 설정

되어 강의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Gelein(1977)은 노화과정 및 노인간호에 대한 교육의 제공이 노인에 대한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원의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노인간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고 있다.

가까이 지내는 친척 및 이웃의 60세이상 노인과 사귀 경험별 노인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P>0.05$), 이는 Robb(1979)와 Campbell(1971)의 결과와 일치한다.

필자는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노인환자에게는 간호하는 사람의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노인 인구의 구성비율이 증가일로에 있는 현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간호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간호원이 될 간호대학생에게 노인 간호에 대한 필요성과 흥미를 부여하여 노인간호에 대한 좋은 태도를 길러주는 일이 요망된다고 보겠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노인환자와 그들의 반응을 이해하도록 더 적절한 교육내용을 설정하여 노인환자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적절히 부가하므로써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시킬 수 있고, 노인환자의 이해에 바탕을 둔 좋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A. 결 론

노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태도에 관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앞으로 근무하기 원하는 분야별, 노인환자를 간호해 본 경험별, 가족중 노인과 살아 본 경험별, 노인의 건강문제 및 노인간호에 대한 강의 경험별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친척 및 이웃의 60세 이상 노인과 사귀 경험별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노인간호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981년 9월 11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E여자대학교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163명과 K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96명, 총 25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평점은 $M=71.67$ $S.D=16.18$ 로 노인에 대한 고

정관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P < 0.01$).

2. 연구대상의 학년별 노인에 대한 태도는 3학년이 2,4학년에 비해 고정관념이 낮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 < 0.01$), 그밖의 학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05$).

3. 앞으로 근무하기 원하는 분야별 노인에 대한 태도는 모성간호분야를 원하는 경우에만 다른 분야를 원하는 경우에 비해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 < 0.05$, $P < 0.01$) 그밖의 분야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05$).

4. 노인환자를 간호해 본 경험별 노인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05$)

5. 가족중 노인과 살아 본 경험별 노인에 대한 태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05$)

6. 노인의 건강문제 및 노인간호에 대한 강의 경험별 노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05$).

7. 가까이 지내는 친척 및 이웃의 60세 이상 노인과 사귄 경험별 노인에 대한 태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05$).

B. 제 언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간호원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인에 대한 태도조사 연구를 하거나, 실험 및 대조군을 선정하여 실험군에게 일정한 교육(이론 및 실습)을 준 후 태도변화를 측정했으면 한다.

2.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좀 더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형성될 뿐 아니라 노인간호에 대한 흥미도 함께 유발시킬 수 있는 강의 및 실습의 경험이 적절히 학생에게 주어지면 좋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김 귀분(1978),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조사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 8권, 제 1호, pp.85~98.
2. 유 숙자(1980), 노년기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10권, 제 2호, pp.95~113.

3. 이 경식(1978), 일차보건의료와 지역사회간호학, 대한간호협회출판부, p.257.
4. 이 지영, 황 경숙(1978), 대학생의 태도변화, 학생생활 연구, 제14권,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pp.48~66.
5. 이 윤숙(1976), 노령자에 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6. 이 효재, 지 순, 박 민자(1979), 한국 저소득층 노인생활에 관한 사회, 경제 및 공간문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34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239~288.
7. 최 경옥(1976), 노인간호에 대한 간호원의 태도조사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 6권, 제 2호, pp.1~9.
8. 최 순남(1981), 노인복지, 1981년도 양성과정교재 (I). 국립사회복지 연수원, pp.415~444.
9. 하 영수 역(1977), 간호학원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1, p.65.
10. Benjamin, I.F. (1967), The role of the geriatric nurse in health maintenance, Geriatrics, Vol. 22, No. 8, pp.58~64.
11. Brunner, Emerson, Ferguson, and Suddarth (1970), Textbook of Medical-Surgical Nursing, Lippincott Company, pp.43~47.
12. Burnside, Irene M. (1976), Nursing and the Aged, McGraw-Hill Book Company, pp.11~12.
13. Calnan, M.F. and Hanron, J.B. (1970), Young nurse-Elderly patient, Nursing Outlook, Vol. 18 No. 12, pp.44~46.
14. Campbell, M.E. (1971), Study of the attitudes of nursing personnel toward the geriatric patient, Nursing Research, Vol. 22, No. 2, pp.147~151.
15. Davis, R.W. (1968), Psychologic aspects of geriatric nursing, American Journal of Nursing, Vol. 68, No. 4, pp.802~804.
16. Dupuis, Paemla H. (1970), Old is beautiful, Nursing Outlook, Vol. 18, No. 8, pp.24~27.
17. Frenay, A.C. (1968), Helping students' work with the aging, Nursing Outlook, Vol. 16, No. 5, pp.44~46.
18. Frenay, A.C. and Pierce, G.L. (1971), The climate of care for a geriatric patient, American Journal of Nursing, Vol. 71, No. 9, pp.1747~1750.
19. Gelein, Janet L. (1977), Improving distributive

- health care for the elderly through continuing education for nurses, A systems approach to Community Health, Lippincott Company, pp. 321~341.
20. Gillis, M. (1973), Attitudes of nursing personnel toward the aged, Nursing Research, Vol. 22, No. 6, pp. 517~520.
 21. Goldfarb, A.I. (1964), Responsibilities to our aged, American Journal of Nursing, Vol. 64, No. 11, pp. 78~82.
 22. Gunter, L.M. (1971), Students' attitudes toward geriatric nursing, Nursing Outlook, Vol. 19, No. 7, pp. 466~469.
 23. Gunter, L.M. and Miller, J.C. (1977), Toward a nursing gerontology, Nursing Research, Vol. 28, No. 9, pp. 212~219.
 24. Kart, C.S., Metress, E.S., and Metress, J.F. (1978), Aging and Health,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p. 280.
 25. Kayser, J.S., and Minnigerode, F.A. (1975), Increasing nursing students' interest in working with aged patient, Nursing Research, Vol. 24, No. 1, pp. 23~26.
 26. Lowenthal, Milton, and Others (1958), Nobody wants the incontinent, RN, Vol. 21, No. 1, pp. 100~103.
 27. Putnam, Phyllis A. (1974), Orienting the young to oldage, Nursing Outlook, Vol. 22, No. 8, pp. 519~521.
 28. Robb, Susanne S. (1979), Attitudes and intentions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Nursing Research, Vol. 28, No. 1, pp. 43~50.
 29. Schwab, Marilyn (1973), Caring for the aged, American Journal of Nursing, Vol. 73, No. 12, pp. 2049~2053.
 30. Tuckman, Jacob, and Lorge, Irving (1953), Attitudes toward old peopl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7, pp. 249~260.
 31. Wilhite, Mary J., and Johnson, Dale M. (1976), Nursing Research, Vol. 25, No. 6, pp. 430~432.

—Abstract—

A Study on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Eun-Il Kim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Presently, there is increasing demand for geriatric nursing care due to increasing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and extended age. And, of particular importance in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nursing care given to the elderly is the attitude of nursing personnel toward the elderly patien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attitudes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and to investigate any possible correlation between these attitudes and the following variables: the students' levels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their preferences for various fields of specialization in nursing after graduation, their clinical experiences with geriatric patients, their personal experience with elderly family members, their educational experience of the elderly's health problems and geriatric nursing, and their experience with relatives and acquaintances over 60 years of ag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ile basic data about the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geriatric nursing.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59 nursing students: 163 in the College of Nursing at E. Womans University., and 96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in K. Colleg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11th of Sep., to the 8th of Oct., 1981, using the Tuckman-Lorge Attitude Questionnaire which contained 131 items excepting 6 items.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was scored by the use of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he relations between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six independent variables were analysed by T-test. The results which were obtained are as follows:

1. The attitude score of nursing students was $M=71.67$ $S.D=16.18$. Nursing students agreed with 54.8% of the stereotypic statements, and they had stereotypic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relatively. ($P<0.01$).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and sophomores had a less stereotypic attitudes than juniors and seniors ($P<0.01$).
3.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the preferences for various fields of specialization in nursing after graduation, and nursing students those who wanted maternity fields had a more stereotypic attitudes than others ($P<0.05$, $P<0.01$).
4.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the clinical experience with the geriatric patients ($P>0.05$).
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the pers-

onal experience with elderly family members ($P > 0.05$).

6.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the elderly's health problems and geriatric nursing ($P > 0.05$).

7.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the experience with relatives and acquaintances over 60 years of age ($P > 0.05$).